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 悅親心
독서가이 열친심
勉爾孜孜 惜寸陰
면이자자 석촌음
老矣無能 徒自悔
노의무능 도자회
頭邊歲月 苦駸駸
두변세월 고택침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흐르도다.

遺子滿贏金
유자만영금
不如教一經
불여교일경
此言雖淡薄
차언수담박
爲爾告丁寧
위이고정녕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청백리공(諱 之直) 서세 607주기 불천위제 봉행



2026년 9월 1일 11시(음력 7월 20일) 성남시 하대원동 소재 추모재(사당)에서는 둔촌 선조의 장자인 행 형조참의겸 보문각 직제학 증 영의정 청백리공(諱 之直)의 서세 607주기 불천위제가 봉행되었다. 우천임에도 7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하였다.

종덕 문화이사의 진행으로, 참석 내빈 소개와 대종회 주영 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는 뒤 분정 발표가 있었다.

초헌에는 후손을 대표해서 대종회 주영 회장, 아헌에 둘째 아드님 후손을 대표해서 충희공종회 만재 대종회 부회장, 종헌에 셋째 아드님 후손을 대표해서 관찰사공종회 형래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축에는 광원군파종회 걸재 대종회 전 총무이사, 집례에 문경공파종회 영재 현감공종회장이 한글로 하였으며, 집사에

는 충희공 후손들 광릉부원군파종회 종경 현종, 문경공파종회 문재 현종, 광천부원군파종회 영래 현종, 좌의정공파종회 무환 현종이 수고해 주었다. 우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조의 엄숙한 제례를 봉행한 후손들은 주변을 둘러본 후 각 지파별로 점심 식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광주이씨(廣州李氏)의 중흥을 이끈 거목이자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청백리인 청백리공 이지직(李之直, 1354~1419) 선조께서는 가문의 영예를 넘어 한국 유교 사상사와 공직자 귀감의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기신 분이다.

후손들이 대대로 숭모하며 불천위(不遷位, 나라나 유럽에서 공훈이나 학문이 뛰어난 인물의 신주를 영구히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한 제도)

제향을 봉행해 오는 청백리공 이지직 선조의 생애와 업적, 사상적 의의를 다음과 정리하였다.

가계 및 백세청풍(百世淸風)의 가학

이지직 선조는 고려 말 공민왕때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내고 광주이씨 가문의 기틀을 다진 둔촌(遁村) 이집(李集) 선생의 아들로 태어났다.

둔촌 선생은 고려 말의 혼란기 속에서도 강직한 절의와 청렴함을 지켰으며, 이러한 가학(家學)은 이지직 선조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선조께서는 유학적 덕목인 청렴·직간·충효를 삶의 근본으로 삼아 광주이씨 가문이 조선 최고 명문가 중 하나로 자리 잡는 사상적·도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관직 생활과 청백리(淸白吏)로서의 귀감

이지직 선조는 고려말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으며, 조선 개국 이후에도 관직을 역임하면서 형조참의(刑曹參議) 등의 요직을 지냈다.

○ 엄정한 법 집행과 사리사욕 배제: 형벌(刑罰)과 사법을 담당하는 형조의 참의로 재직할 때, 억울한 죄인이 없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였다. 권력자나 친인척의 청탁을 일절 배격하고 오직 법과 도리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였다.

○ 청렴결백한 삶: 벼슬길에 있으면서도 사사로운 재산을 늘리지 않았으며, 관복 외에는 집에 기와 한 장 제대로 둘러지지 않을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하였다. 이러한 청빈함과 공정함이 널리 알려져 후일 청백리(淸白吏)로 녹선(錄選)되었다.

삼탄(三炭)·삼형제를 통한 명문가의 기틀 확립

이지직 선조는 가문의 사상적 뼈대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학문과 인품이 뛰어난 세 아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여 가문의 번창을 이끌었다. 그의 세 아들은 호에 모두 '탄(炭)' 자가 들어간다 하여 삼탄(三炭)이라 불리며 조선 초·중기 조정의 핵심 인물로 활약하였다. 세 형제 모두 학문과 벼슬길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우애가 깊고 유교적 덕목을 실천하여 후세에 광주이씨 삼탄(三炭)으로 높이 칭송받게 되었다.

○ 자신을 태워 세상에 온기를 전함: 솥은 스스로를 태워 붉은 열과 빛을 내며 주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는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사리사욕을 버리고 세상과 백성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선비의 성찰과 기개를 상징한다.

○ 지조와 절개: 솥은 불에 타더라도 그 본질이 깨끗하고 순수함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선비의 곧은 절개와 청렴함을 비유한다.

선조의 엄격하고 청렴한 가정교육은 후대에도 이어져, 관음리, 한사성 등 수많은 정승과 판서, 대제학을 배출하는 광주이씨 문중의 빛나는 전통으로 정착하였다.

불천위(不遷位) 제향 봉행의 의의

원래 조선시대의 사당 제사는 4대조까지만 지내고 신주를 땅에 묻는 것이 원칙(4대 봉사)이나, 불천위는 나라나 유럽에서 공덕이 지대한 인물에게 예외적으로 영구히 제사를 지내도록 허용한 영예로운 권위이다.

○ 덕만과 공의의 인정: 이지직 선조의 불천위 봉행은 선조 개인의 청렴함과 공직자로서의 귀감, 그리고 조선 왕조 성리학적 질서 수립과 가문의 학문적 기여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 후손들의 숭모와 결속: 광주이씨 대종회를 중심으로 매년 엄숙하게 봉행되는 불천위제는 단순한 조상 숭배를 넘어, 선조의 청백리 정신과 백세청풍(百世淸風)의 가훈을 현대에 되살리고 문중의 우애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백리공 이지직 선조는 물질적 풍요보다 도덕적 자존감을, 권력보다 공정과 청렴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 그분의 불천위제 봉행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공직의 참된 의미와 바른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귀중한 유교적·문화적 유산이다.

행장(行狀)

주요관직

○ 1380년(고려 우왕 6년) 전구서승(典廐署丞)으로 문과에 급제(아원)하여 한림, 교리를 거쳤다.

○ 지방관으로 평창, 충주, 청주 등 삼전대목을 지냈고, 관동(강원)과 호서(충청) 지방의 관찰사를 역임했다.

○ 내직으로는 경승부소윤, 형조우참의, 보문각직제

학(寶文閣直提學)을 지냈다.

○ 사후 증직으로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춘추관 서운관사 제자사에 추증되었다.

충의와 강직함 (소도의 변)

○ 1398년(태조7년) 제1차 왕자의 난(소도지변) 당시, 보문각직제학 재임 중 위험을 무릅쓰고 정안군(훗날 태종)의 말고삐를 잡으며 직간했다

○ 당시 “밝은 하늘 아래 부왕 앞에서 아우를 죽이면 어찌합니까?”라며 목숨을 걸고 간하여 좌우의 무사들이 그를 해치려 했으나, 태종이 그 강직함과 사람됨을 알고 야외로 축출하는데 그쳤다.

○ 변계량(卞季良) 등 당시 학자들은 그의 강직함과 곧은 절개를 두고 백이·숙제에 비견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은거와 청백리 녹선

○ 태종의 뜻에 거슬린 후 광주 탄천(炭川)가로 물러나 단표누항(單瓢陋巷)의 청빈한 삶을 살며 학문에 매진했다.

○ 태종이 말년에 동궁(세종)에게 그를 등용할 것을 권하여 세종 즉위 후 관직을 내리고 불렀으나, 취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 조정에서는 그의 맑은 절개와 청렴함을 기려 청백리(淸白吏)에 녹선할 때 으뜸으로 삼았다.

가정 및 부인 경주이씨의 가법

○ 부인은 경주이씨 인주부사 이원보(李元普)의 딸이다.

○ 부인 역시 성품이 엄격하고 가법을 바로 세워, 아들(충희공)이 높은 벼슬에 올랐을 때에도 겸손함과 예법을 잃지 않도록 엄히 가르쳤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대종회 단신

■ 둔촌 선조 탄신 700주년 기념 행사 분과위원장 간담회의

일시: 8월 4일 11시

회의장소: 대종회 5층 회의실

참석자: 용일준비위원장, 대종회 주흥 부회장, 양재, 용문, 종덕 이사 분과위원장 7명 중 / 6명 참석

- 프로그램 기획 분과위원장: 근환
- 기념비 제작 및 연구분과위원장: 규철
- 행사 주관 분과 위원장: 종일
- 대내외 협조 분과위원장: 종현
- 홍보 및 미디어 분과위원장: 수전
- 자금 및 물자 조달 분과위원장: 용백
- 행사장 관리 분과위원장: 중우

분과별 주요 임무:

① 프로그램 기획 분과위원회: ◆ 기념행사 컨셉, 방향, 분과별 조직, 인선, 임무 등 전반적인 ◆ 시스템 구축

② 기념비 제작 및 연구 분과 위원회: ◆ 동상 제작(동상 재질, 문구, 설치 장소 등 결정), 선조 행장 입간판 19위. “둔촌 선조 생애와 철학”(연구 발표)
③ 행사 주관 분과 위원회: ◆ 행사별(기념식, 종원 화합 레크레이션, 가두행진 등 주관, 둔촌 문화제, 둔촌청소년 문학상, 둔촌문학상)

④ 대내외 협조 분과위원회: ◆ 대외 관계기관(성남시, 성남문화원, 중원구청, 경찰서 등)과의 협의(지원사항, 시설이용, 도로이용, 행사장소 교통 통제 등) ◆ 광이 유명인 파악 및 초청, ◆ 대내 인원파악, 초청장 발송 등

⑤ 홍보 및 미디어 분과위원회: ◆ 둔촌 선조 관련 자료 수집 및 책자 발간, AI영상 제작, 단막극 등. ◆ 엠블럼 결정, 홍보용 팸플렛, 배너, 깃발, 플랜카드, 가로 기 등 ◆ 행사 기록.



⑥ 자금 및 물자 조달 분과 위원회: ◆ 성남시 문화담당 부서와의 2027 문화 예산 배정 여부 타진. ◆ 협찬금, 성금모금 활동(동상 건립 기금, 둔촌 선조효도기금). ◆ 기념품, 식사 간식, 음료, 응급 의약품 및 엠블런스 등

⑦ 행사장 관리 분과위원회: ◆ 행사장 질서 유지(무대 제반장치 점검, 차량안내, 사고방지, 행사 물품 이동 및 배분 등). ◆ 기념품 관리 및 배포 등

대종회 단신

■ 대종회 주영 회장 성남시 신상진 시장 접견

일시: 8월 6일(금) 16:00 ~ 18:00

장소: 성남 시장실

참석자: 신상진 성남시장

이주영 광주이씨대종회 회장

방영기 성남문화원장

최명숙 성남학연구소 연구위원

이종덕 광주이씨대종회 문화이사

허지연 성남문화원 사무국장

안건 : 둔촌 이집 선생 탄신 700주년 기념
'둔촌문화제' 성남시 주관 추진 개요

회의내용:

1. 추진 배경 및 방향

성남시와 광주이씨대종회는 둔촌 이집선생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위상을 재조명하고, '둔촌문화제'를 성남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2027년부터 성남시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2. 성남시장 주요 지시사항

성남시장은 교육문화체육국을 중심으로 둔촌 탄신 7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며, 다음 핵심 과제를 지시하였다.

○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학생, 주부,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연중 지속적으로 둔촌의 삶과 충·효·선비정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마련.

○ 추진 체계 확대 및 예산 반영: 성남문화원 단계를 넘어 성남시 차원의 종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수립 추진.

3. 광주이씨대종회 협조 요청

성남시 측은 둔촌선생의 삶과 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교육 학술 문화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대종회 차원에서 적극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향후 계획

향후 교육문화체육국을 구심점으로 관련 부서, 성남문화원, 광주이씨대종회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자리 매김시켜 나갈 계획이다.



■ 대종회 주영 회장, 원로 초청 간담회 및 오찬 주재

일시: 8월 20일 11:00 / 장소: 대종회 회장실

참석자: 옥재 전 회장, 원재 전 상임부회장,

선래 전 관찰사공회장

효석 전 관찰사공회장

회의내용: 주영 회장은 문중 원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종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오찬을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추진되어 온 주요 종원활동 및 대종회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둔촌 선조 탄신 700주년 기념행사, 전자족보

및 규약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등 문중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어 참석한 원로분들은 대종회 노고를 격려하며 문중의 숭조 정신을 계승하고 종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언과 의견

을 나누었다. 주영 회장은 "원로 어르신들의 해안과 소중한 말씀을 깊이 새겨, 송조 이념을 바탕으로 문중의 우의를 다지고 빛나는 전통을 이어나가는 대종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3회 전자족보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연 및 설명회

일시: 8월 28일 10:30

회의장소: 대종회 지하회의실

참석자: 총인원17명 중 16명 참석

회의내용: 4개 업체 시연회

1. 족보나라
2. 뿌리를 찾아서
3. 태신미디어
4. 마이루트

주영 위원장은 4개업체 시연회를 경청한 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 두가지 안건을 압축·결정하였다.

○ 다음 회의시 추가로 1~2 업체를 선정하여 시연회 진행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항목 등을 결정

차기 회의안내 일시:

9월 18일(금) 10:30



지파종회 소식

광릉부원군파종회

■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광릉부원군파종회 산하 광주대쌍령종회(회장 주신)에서는 2026년 8월 15일(토) 제67회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주신 회장을 비롯해서 대의원 그리고 많은 종친이 참석하였다.

식순에 의해서 성원보고와 개회선언, 국민의례에 이어서 회장 인사가 있었는데 주신 회장은 인사에서 “존경하는 임원,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종친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종회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불순한 일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총회도 원만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하며 인사에 가름하였다. 이어서 2025년도 종회 업무경과 보고, 그리고 화준 감사로부터 2025년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다.



한편 부의 안건으로 2025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과 2026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상정하여 큰 이견 없이 승인을 얻었다. 이후 기타 사항으로 산적해 있는 종사 현안을 심도 있게 토의한 후 총회를 폐회하였다.

끝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대쌍령재회 소종중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 광릉부원군파종회 총무이사 문수 기

충희공종회

■ 충희공(諱 仁孫)선조 逝世 563주기 불천위제 봉행

충희공종회(회장 봉수)에서는 2026년 8월 25일(화) 충희공 선조 563주기 불천위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대종회 주흥 상임부회장을 비롯해서 충희공종회 경래 전 회장 그리고 각 지파 회장 및 집행부 종친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웅재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참석자 소개와 경래 전 회장 인사, 대종회 주흥 부회장 격려사, 관찰사공종회 형래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서 광릉부원군파종회 문수 총무이사로부터 선조님 행적 소개가 있었다.

제례 분정에는 집례 삼봉종회 영래 총무, 축에는 일봉종회 만재 부회장, 집사자는 종길 부회장, 종경(일봉종회) 문재(이봉종회) 무환(오봉종회) 현종이 봉사하였다. 초헌례 헌작은 경래 전 회장, 아헌례에 대종회



주흥 상임부회장, 종헌례에는 관찰사공종회 형래 회장이 헌작하였다.

제례를 모두 마친 참사자들은 부조묘에 모여 음복



하며 선조님 음덕을 듬뿍 받았다. 이후 자리를 식당(여주 쌀밥집)으로 이동하여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숭조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여주 세종신문사 이재춘 대표이사가 식당을 찾아와 문수 총무이사의 안내로 종친들께 인사를 드렸다. 세종신문은 금년부터 둔촌 선조의 시문을 싣고 선조님 함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재춘 대표이사는 충희공 선조의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종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 충희공종회 총무이사 웅재 기

■ 충희공 생애 및 활동 내역

삼가 충희공 선조님의 전기(傳記)를 살펴보면 공께서는 조선 초기 1395년(태조 4) 부친이신 청백리공(휘 지직)과 모친이신 경주이씨 사이에 차자(次子)로 출생하셨다. 공의 휘는 인손(仁孫)이고 자는 중윤

(仲胤)호는 풍애(楓崖)이시다.

공께서는 1411년(태종 11) 17세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417년(태종 17) 식년시 문과 동진사로 급제하시어 예문관 검열에 발탁되어 관직을 시작하셨다.

그 뒤 (세종 12)사헌부 감찰이 되시고 1429년(세종 11) 중국 명나라에 천주사 서장관으로 다녀오셨다. 이

후 1431년(세종 13) 형조좌랑으로 승진하시고 1436(세종18)예조좌랑으로 관직을 옮기신 후 사간원 우헌납이 되시고 1440년(세종 22) 의정부 사인(舍人)이 되셨다. 1444년(세종 26) 사헌부 집의, 1445년(세종 27) 봉상시윤 1447년(세종 29) 판군자감사와 평안도 경차관을 겸하셨다. 1448년(세종 30) 예조참의로 승진하

시고 1449년(세종 31) 외직인 경상도 관찰사로 나가서서 지방 행정에 전념하였다. 문종 조에 들어서(문종 2) 내직으로 돌아오셔서 예조참의로 복직하시고 나약한 문종 임금에 승하하고 단종이 즉위하자 1452년 9월 형조로 자리를 옮기셔서 참의가 되시고, 요동도사 선위사를 겸직하여 사신 접대에 만전을 기하였다. 당년 12월에는 백관들의 감찰과 기강확립을 위한 행정 부서인 사헌부 대사헌(종2품)에 임명 되었다. 이후 한성부윤으로 좌천되시고 1453년 (단종 2)9월 경창부윤으로 명나라에 성절사 사신으로 표문을 배례하고 돌아오셨으며 11월에는 형조 참판에 승급되었다.

1454년(단종 3) 8월 벼슬의 꽃인 육조(六曹)에서 호조판서에 등용되시고 이후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의 보위를 찬탈하고 권력을 장악하자 공을 다시 호조판서에 재 등용하셨다. 1457년(세조 3) 함길도(함경 남북도)도 관찰사로 나가시고 11월 호조판서에 복귀하였다. 이후 경상도 도 순문 진휼사로 나가셨다가 1458년(세조 4) 3월 경상도 도 순문 진휼사(賑恤使)를 사직하니 임금은 노고를 치하 하고 단의(單衣 한 벌 의 옷)와 궁시(弓矢)를 내려 주었다. 당해 6월에는 판중추원사에 오르시고 1459년 7월 호조판서에 재등용 되었다. 11월 8일 의정부 우찬성 겸 판 호조사로 제수되셨으며 11월 11일 의정부 우의정에 대배를 받으시고 11월 15일에 임령치사(仍令致仕)하셨다. 동년 12월 16일에는 권설직으로 중추원 부사에 오르셨으니 세조임금의 사유가 있었다. 본 내용이 충희공 선조의 시대별 대략의 역관(歷官)내용이었다.

불의(不義)에는 단호하고 의(義)에는 어질고 인자하셨던 충희공

이밖에도 공께서는 명망을 높으신 분으로 어질고 인자하셔서 세조3년 1457년 2월 22일 판중추원사로 계실 때 사정전(思政殿 -임금이 거처하며 정사를 보던 곳)으로부터 임금에 명을 받으시고 종부제조 임영대군(諱 瑒)과 함께 선왕(先王) 선후(先后)의 영정을 받들고 대내(對內 -궁궐)에 입궐하도록 하였다.

인수대비 왕세자빈 책봉

공께서는 세조 6년 1460년 4월 9일 인수대비(성종 임금의 모후)께서 왕세자빈(王世子嬪)으로 책봉 받은 뒤 곧 그의 사가를 방문하여 납징하였는데 종친부에서는 효령대군이 정사(正使)로 명을 받으셨고 충희공께서는 부사(副使)로 명을 받으시어 두 분이 인수대비 사가를 방문하여 납징(納徵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하게 하였다.

실록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460년 4월 9일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명하기를 효령대군 보(諱 補)를 정사로 삼고 우의정으로 임령치사(仍令致仕)한 이인손을 부사로 삼아 빈씨(嬪氏 왕세자빈 내정자)집에 납징하게 하였다.

납징 예물은 현(玄)세필 아청단자, 훈 2필 대홍단자, 각색단자 6필, 백릉(白綾), 자주(紫紬), 초록주(草綠紬) 압두록주(鴨頭綠紬) 유청주(柳靑紬)각 각 4필, 이홍주(李弘胄)16필, 백면자(白綿子)10근 화은(花銀)50냥, 대홍단노의 1벌, 아청단자대의 1벌, 금배 견화 대홍단자 장삼 1개, 갓(笠) 1개, 영자 개두 전후 면사 구협

리 1벌, 오지(五指) 1개, 백주단고(백주단고 4벌 말 4필 등을 납징하고 돌아오셨다. (기타 많은 예물 생략)

1460년 4월 11일 책봉식

세조 임금은 근정전에 나가서 효령대군 보를 정사로 삼고 우의정으로 임령치사(仍令致仕)한 이인손을 부사로 삼아 한씨(한확 선생의 딸 좌의정 역임)를 왕세자빈(王世子嬪)으로 책봉한다.

책문(冊文)은 이러하였다.

내가 큰 왕업(王業)을 이어받아 지키니 그 황위(皇位)를 차서(次序)에게 잇게 하려고 밤낮으로 잊지 못하였다.(중략)

아 그대 한씨는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유하고 아름답고 정숙하여 종묘의 제사를 도울만하므로 이제 효령대군 보와 우의정으로 임령치사(仍令致仕)한 이인손등을 보내어 그대에게 책보(冊寶 - 옥책과 금보)를 보내어 왕세자빈으로 삼는다 하였다. 한편 근정전에서 왕세자빈 즉위에는 수많은 종류의 물품과 군사들이 진을 친 가운데, 종친과 문무백관들이 조당(朝堂)에 집합하여 조복으로 갈아입고 예를 다하였다. 본 내용과 같이 충희공 선조께서도 인자하시고 고명하시어 당대의 많은 신료들을 위로하고 세조 임금은 공께서 우의정으로 임령치사 하신 이후에도 공의 인품을 높이 평가하고 부사(副使)로 삼아 왕세자빈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공의 훌륭한 인품이 그대로 묻어있다.

- 광릉부원군파종회 총무이사 문수記

문경공파종회

■ 새 등지서 새 출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 맞이전

문경공파종회(회장 종민)는 오랜 검토 및 계획하여 종회 소유 서울 구로구 건물에 종회 사무실 리모델



링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8월 12일에 이전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새 출발을 시작했다.

이번 사무실 이전은 금천구 가산동 사무실 위치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많은 종인들의 의견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종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 및 종회 소유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문경공파종회는 기록상으로 1933년에 송덕재공계 용육 현종이 제1대 도유사로 종회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90여년 동안 문경공 파조님의 숭조 및 종친 간 화합의 터전인 자체 사무실을 마련한 게 최근이었다. 처음 사무실은 1985년경에 탄수공계 종수 도유사 회사 건물인 용산구 남영동 건물에서 시작하여, 1990년경 대종회 장안동 건물에, 2006년경 대종회 종로구 수송동 건물에 임대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23년에 금천구 가산동에 사무실을 매입하면서 처음으로 자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종회 업무를 보아 왔다.

금번 리모델링 공사는 사정에 의해서 우기에 공사를 시작하여 장마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 및 설계 변경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정된 예산에서도 새롭게 단장한 서울 구로구 사무실은 효율성을 극대화한 종무 행정 공간과 함께, 종친들이 언제든지 방문해 소통할 수 있도록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문경공파의 역사와 전통을 기리는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장 공간도 함께 마련되었다.

이번 이전에 따라 종회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선조의 훌륭한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는 숭조 돈목(崇祖敦睦)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아울러 종친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경공파종회 집행부는 “이번 이전을 기회로 종회의 발전과, 종회의 소중한 자산을 아끼고 내실을 다지며, 전국의 모든 문경공파 종친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리모델링 기간 동안 공사가 무사히 완료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종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자문해 주신 원재 전 대종회 상임부도유사, 영희 탄수 종회장께 감사드립니다.

종회 측은 종친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추후 일정을 정하여 간소한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 주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161길 32(스카이2, B1)
- * 전화 : (02) 6291-1100
- * 팩스 : (02) 6291-1101
- * 오시는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에서 약 800m, 도보 10~15분

- 문경공파종회 총무이사 종환記

■ 東阜相公(諱 俊慶) 서세(逝世) 454주기 불천위제 봉행

문경공파 동고종회(종회장 성수)는 광주이씨 중 유일하게 종묘(宗廟) 선조대왕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어 계신 충정공(忠正公) 동고상공의 불천위제를 8월 19일(음 7월 7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산35-1번지 충정사(忠正祠)에서 봉행하였다.

이날은 유례없이 계속되던 무더운 날씨가 선조님의 음덕으로 한풀 꺾여서 제례 봉행에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종회의 주영 회장, 주흥 상임부회장, 충희공종회의 경래 전회장, 웅재 총무, 승재 재무, 관찰사공종회의 형래 회장, 재석 전회장, 진호 재무, 광릉부원군파종회의 용두 회장 대행 겸 재경화수회 회장, 문수 총무, 문경공파의 종민 회장, 종환 총무, 문경공파종손 광희, 광천부원군파의 종두 회장, 종준 부회장, 종성 전회장, 영래 총무, 조미 연 실장, 광원군파의 석래 회장, 용철 전회장, 도정공종회 용각 총무, 좌의정공파종회의 근환 회장, 충교 전 회장, 시하 총무, 무한 화수회장, 참판공파종회의 종성 회장, 선래 전회장, 용 부회장, 응호 전부회장, 종현 총무, 좌통례공파 용주 회장, 용면 총무, 통제사공종회 대래 총무, 문숙공파종회 용중 회장, 문경공파 탄수종회 영희 회장, 문경공파 송덕재종회의 상훈 회장, 영희

총무, 양호당종회의 유래 회장, 흥재 총무, 참판공종회 문재 회장, 청장년연합회 종우 회장께서 참석하시었고, 내·외빈, 동고종회 종원을 포함하여 총 80명이 참석하여 성행리에 제례를 진행하였다.

제례의 분정(分定)에는 초헌관에는 태희 동고종손, 아헌관에는 대종회 주영 회장, 종헌관에는 문숙공파종회 용중 회장께서 헌작을 하였으며, 축관에는 종길, 집사에는 문재, 종국, 종길, 종경, 집례에는 영재 종원이 맡아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하였다.

제례를 마친 후에는 양수역 근처에 있는 평창국밥집에서 식사를 겸하여 음료·주류를 나누면서 오랜만의 회포도 풀고 덕담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종회 발전을 위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즐겁고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불천위제를 마무리하고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면서 이날의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특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서 걱정을 하였으나 선조님의 음덕으로 구름이 낀 날씨여서 제례를 마칠 때까지 한결 편안하게 무사히 불천위제를 봉행할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선조님의 큰 뜻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끝으로 이번 불천위제를 봉행함에 있어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례에 직접 참석하시어 향축금을 헌작하여 주신 대종회 주영 회장, 충희공종회, 관찰사공종회, 5군지파종회, 참판공파종회, 좌통례공파종회, 문숙공파종회, 좌통례공파종회, 좌통례공통제사공종회, 참판공종회, 문경공파탄수종회, 송덕재공종회, 양호당종회, 현감공종회, 광원군파도정공종회 회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문경공파 동고종회 총무 건수 기

좌의정공파종회

■ 좌의정공파종회, 한음 선조 영정 등 유물 경기도박물관 기증 협의

영정 3점 등 유물 7종 12점의 안전한 보존과 활용 방안 논의

광주이씨 좌의정공파종회는 지난 9월 2일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선조의 영정 3점을 비롯한 유물 총 7종 12점을 경기도박물관에 기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박물관 및 경기역사문화유산원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협의에는 기증자 측에서 시우 종손, 근환 회장, 규철 총무이사과 경기도박물관 정미숙 박사를 비롯한 관계자 2명과 경기역사문화유산원 이영은 박사를

비롯한 관계자 2명이 참석하였으며, 유물의 보존처리와 향후 관리방안, 박물관 기증 절차와 조건, 기증 이후 종회의 활용 방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한음 선조 영정 등 7종 12점 보존 추진

우리 종회는 한음 선조의 영정을 비롯한 여러 유물을 종손가에서 오랫동안 보존해 왔다.

이 가운데 1906년경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한음 선조 전신 영정 1점은 지난 1998년 경기도박물관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유물 6종 11점은 전문적인 보존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으로 보존조치를 하기 위하여 지난 5월 경기역사문화유산원으로 반출하였으며, 현재 보존처리가 진행중이다. 특히 이들 유물 가운데 1880년 경 궁중화가 이한철(李漢楨)이 그린 것으로 알려진 한음 선조의 전신 영정 1점은 그동안 종손가에서 보관

해 왔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훼손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다.

전문가의 검토 결과 이 영정을 제대로 보존처리하는 데에만 억대에 이르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영정과 고문서 등은 보존처리를 마친 이후에도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전문적인 보관시설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 측은 해당 영정 등을 경기도박물관에 기증할 경우 경기도 예산으로 필요한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한음·한습 등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박물관 수장고에서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종회는 막대한 보존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전문적인 보관과 관리, 화재·도난·훼손 등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정 등 관련 유물을 경기도박물관에 기증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기증 이후에도 유물의 전승 내력은 분명하게

종회는 이날 협의에서 기증이 단순한 유물의 보관 위탁과 달리 그 소유권을 박물관에 이전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이에 따라 종회의 중요재산 처분에 관하여는 규약상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박물관 측에 설명하였다. 또한 기증 이후에도 해당 유물이 한음 선조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화유산은 유물 자체뿐만 아니라 누가 소유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전승되었는가는 출처와 전승 내력(Provenance) 역시 역사적 가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회는 박물관의



소장품 데이터베이스(DB)를 비롯하여 향후 전시, 도록 및 각종 설명자료 등에 기증자를 '광주이씨 좌의정 공파종회 기증'으로 명확하게 기록·표기하여 유물의 전승 내력이 후대에도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별전 대여와

영인본 제작·이미지 활용도 요청

종회는 기증 이후 한음 선조와 관련한 종회의 학술·문화 및 현양사업에 해당 유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요청하였다. 먼저 향후 종회가 한음 선조와 관련한 특별전이나 기념사업 등을 개최할 경우 박물관이 정한 절차와 보존기준에 따라 영정과 유물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귀중한 원본은 박물관에서 안전하게 보존하되 종회가 각종 행사나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영정과 유물의 고품질 영인본을 제작하여 종회에 제공하는 방안도 요청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한음 선조에 관한 도서 출판과 학술 연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종회 홈페이지, 강연자료 및 영상콘텐츠 등을 제작할 때 해당 영정과 유물의 이미지를 종회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도 요구하였는데, 이는 유물의 소유권이 박물관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한음 선조를 연구하고 그 정신을 계승·현양하는 후손들의 활동에 해당 유물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종회는 한음 선조의 영정과 관련 유물의 역사적·예술적 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그 가치가 인정될 경우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박물관과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

도 요청하였다. 박물관 측은 종회가 제시한 이 같은 요청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종회가 유물기증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기증 조건으로 명시하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대의원총회 의결 등 공식절차 거쳐 결정

이에 종회는 박물관 측으로부터 유물기증신청서를 전달받아 기증 대상 유물과 기증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종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이날 협의를 마쳤다. 따라서 현재 기증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종회 규약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비롯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기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조의 영정과 유물을 후손들이 직접 소유하고 보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수백 년을 이어온 귀중한 유물을 훼손 없이 보존하여 다시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후손들의 중요한 책무라 할 것이다. 특히 한음 선조의 영정과 유물은 한 번 훼손되거나 소실되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귀중한 역사자료라는 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보존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증 협의는 선조의 귀중한 유물을 단순히 외부기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공공보존체계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그 출처와 전승 내력을 분명히 남기고, 학술연구와 전시·교육 및 선조 현양사업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좌의정공파종회는 앞으로 종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박물관 측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한음 선조의 소중한 유물이 가장 안전하게 보존되고,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후대에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좌의정공파종회 회장 근환記

송모사연혁사(崇慕祠沿革辭)

송모사 건립에 재정지원을 해 주신 광주이씨대중회와 관찰사공종회, 칠곡종회를 비롯하여 물심양면으로 모든 일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후원과 협찬을 해 주신 여러 종인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감호당 이도장공께서 위기지학을 실천하신 덕목을 자손대대로 계승발전 시키고자하는 중계자로서 소임을 다 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감호당 도장공의 불천위 신주를 모시는 송모사를 2024년 5월 25일 준공하였으며 오늘 연혁비 모식을 하고 서세 359주기 불천위제

를 모시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더 한층 문중 발전과 광주이씨 위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 감호당공종회 종회장 준석記

칠곡 왜관 애국동산에서 칠곡 광주이씨 선조들의 숭고한 애국혼을 가슴에 담다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애국동산은 낙동강을 바라보는 언덕 위에 있으며, 항일독립운동을 통해 민족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추모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광복절을 맞아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조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열려 지역민들과 후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왜관 애국동산은 지역 출신 항일 운동가와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의 대표적 애국 성지이며, 특히 광주이씨 문중은 일제강점기 당시 목숨을 걸고 국권 회복과 지역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을 대거 배출하여, 지역 사회는 물론 문중 전체에 깊은 울림과 큰 자긍심을 안겨주고 있다.

광주이씨 좌통례공파 칠곡종회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왜관 애국동산에서 문중 후손 3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선조 숭모 및 항일독립정신 계승 광복절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이씨 좌통례공파 칠곡종회 승호 회장과 수덕 총무를 비롯해 건양회 익주 회장, 동산회 태후 회장 등 종회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돌발, 매원, 신동 등 칠곡 관내 주요 마을에 거주하는 문중 회원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선조들의 애국적 삶과 역사적 가치를 함께 되새겼다.

참석자들은 애국지사 추모비에 헌화와 분향을 올리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조들의 넋을 기렸으며, 독립운동을 기반으로 선조들이 만든 역사적인 가치를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연계한 광주이씨 문중의 사회적경제 활동 강화 등에 더 큰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광주이씨 칠곡종회 승호 회장은 "일제의 강점 아래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조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며 "매년 광복절마다 올리는 이 자리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선조들의 불굴

의 항일 정신을 후손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지역 사회에 애국심을 고취하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양회 익주 회장과 동산회 태후 회장 역시 "돌발, 매원, 신동 등 우리 삶터 곳곳에 깃든 선조들의 애국 흔적을 잘 보존하고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문중의 화합은 물론 지역 사회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이씨 좌통례공파 칠곡종회는 매년 8월 15일 왜관 애국동산을 찾아 정기 추모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 차세대 후손들을 위한 독립운동 역사 기록 보존 및 계승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광주이씨 좌통례공파 칠곡종회 총무 수덕

종인 칼럼

스마트족보, 광주이씨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들어가는 말

익명의 섬, 이문열의 소설이다. 소설에서 '익명의 섬'이란? 분명 존재하는데 다른 세상과 소통되지 못하는 내밀한 이야기의 비밀스런 고립성을 이야기한다. 필자가 광주이씨종회 활동을 하며 접하게 된 광주이씨 6대 족보와 보화 서적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떠오른 것이 '익명의 섬'이었다. 분명 존재하지만 빛도 들지 않는 책꽂이 속의 족보(譜冊)들은 대부분의 종인들과 소통하지 못한 채 아날로그의 공간에 시간의 화석으로 남아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2000년대 초부터 디지털아카이빙에 익숙한 터라 무거운 족보를 들고 와 하나 하나 손으로 찾아야 하는 광주이씨 족보의 오리진널 아날로그성을 답답해 하면서도 어찌 보면 손때 묻은 족보에서 지난 날 아버지의 아련함을 떠올렸다.

이 시대 족보와 보화 문헌기록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필자의 관심사였다. 보책의 내용을 세상에 옮겨 알리려면 웹3.0의 시대에 디지털아카이빙과 디지털.모바일. SNS미디어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세상 밖 사람들과 소통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이미 지구촌 사람들의 삶에 깊이 침투하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과정이 광주이씨스마트족보의 제작이며 존재 이유다. 이 시대 광주이씨 후손들과 호흡하며 살아있는 족보가 700년전 둔촌선생과 2026년과 미래의 후손들을 이어줄 수 있다. 광주이씨스마트족보의 제작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디지털이론과 스마트 족보의 자료, 그리고 종덕 문화이사께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다.

제1장. 스마트 족보에 대한 기본 이해

1. 스마트 족보란 무엇인가?

스마트 족보란 기존의 인쇄된 책 형식의 족보(譜

冊)의 모든 기록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인터넷을 가리키는 웹(Web) 2.0이나 웹3.0, 그리고 인공지능 AI 환경에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SNS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단말기 환경에서 실시간 접속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족보의 내용을 쉽게 간편하게 검색하고 상호작용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이른바 스마트한 온라인 족보를 말한다.

2. 스마트 족보의 기반 기술, 디지털, 디지털 아카이브

스마트 족보의 핵심 기반기술은 디지털이다. 디지털의 기술적 속성은 결국 디지털로 생산되는 콘텐츠와 플랫폼의 속성을 결정한다. 디지털 기술은 1)기록자료 보존의 영구성과 2)기록자료 원본의 무한 복제 3)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정보처리 세 가지 강력한 효용성이 있다. 이러한 디지털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인 스마트족보는 디지털SNS미디어이다. 스마트 족보는 아날로그 족보(譜冊)기록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웹2.0과 웹3.0체계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 구성한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문서, 사진, 영상 등의 기록물을 디지털로 변환해 인터넷상에서 영구히 보존하고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간단하고 쉽게 검색하여 자료를 공유하여 참여하는 디지털 기록 시스템이다. 이러한 변화는 아날로그 족보(譜冊)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실시간 상호작용과 언제 어디서나 족보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세상으로 이끌며 족보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3. 스마트 족보는 광주이씨 종원 모두의 미디어이다.

이 시대의 미디어란 기존의 매스미디어(대중매체) 영역에서 대폭 확대되어 소셜미디어가 새롭게 미디

어 영역을 크게 확장 시켰다. 소셜미디어는 매스미디어 바깥의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과 6G 스마트폰 등 모바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작되어 다양한 SNS 플랫폼의 등장과 다양한 양상으로 확대된 미디어를 가리킨다.

새로운 소셜미디어는 인간의 삶의 양식과 사회 전 영역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의 하나인 스마트족보는 디지털기술과 SNS 모바일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일종의 소셜 미디어이며 또한 플랫폼이다. 디지털SNS미디어의 속성은 사용자와 미디어플랫폼의 강력한 상호작용과 다양한 기록 정보에 대한 시공간의 제약 없는 실시간 자유로운 접속, 그리고 정보의 오픈, 즉 공유이다.

해외와 국내의 광주이씨 후손들이 웹2.0과 3.0 기반의 인터넷 공간에서 광주이씨 스마트 족보 네트워크에 실시간 접속하여 족보 기록을 검색하고 다른 후손들과 다양한 커뮤니티 상호작용으로 소통하는 디지털.SNS.소셜미디어플랫폼이다. 이 시대의 다양한 디지털.모바일. SNS 소셜미디어는 이미 세상을 보는 창으로 기능하고 있고 우리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핵심 모티브이다. 스마트 족보는 이 시대 디지털.모바일. SNS 소셜미디어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이를 다양한 기능으로 구축해야 한다.

4. 스마트 족보를 위한 웹2.0, 웹3.0의 기본 이해

월드 와이드 웹(WWW: World Wide Web): 인터넷 환경을 가리키는 용어로 기술 발전 단계에 따라 웹 1.0과 웹2.0, 그리고 웹3.0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된다.

웹2.0 : 사용자들이 각종 콘텐츠를 자유롭게 올리고 인터넷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게 하는 등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

려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 일방적 서비스 형태의 초기 웹과 비교하여 기술적인 진보보다는 웹 서비스의 사용성을 대폭 개선하여 누구나 웹에 쉽고 편리하게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진화한 웹.

웹3.0 : 웹 이용자들의 데이터, 개인정보 등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웹.

5. 족보의 기술적 변천 과정

한국 사회에서 족보는 종이 서책의 족보를 시작으로 최근 화두인 AI인공지능기반 족보까지 기술적 측면에서 빠른 트렌드 변화를 겪고 있다. 그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종이 서책족보(고려·조선~1990년): 고려와 조선시대의 목판과 금속활자 족보시대부터 근대이후 인쇄술로 제작된 족보의 시대 2) 스마트족보(1990년~2010년) CD나 PDF 등 단순 디지털 문서파일 기반 족보 3) 인터넷 족보(~2020년) 웹1.0~웹2.0기반 e-Book, 인터넷 웹사이트 기반 족보 4) 스마트AI족보(2020년 이후) 웹3.0과 디지털모바일SNS, 그리고 AI 기반 족보이다. 이러한 족보의 기술변화에 비추어보면 광주이씨의 최근 족보인 광주이씨대동보는 서책 족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웹기반 디지털모바일SNS AI 트렌드를 옷처럼 입고 사는 후손들에게 광주이씨 족보는 사이에는 40년이 넘어 수백년, 시간의 장벽이 무겁게 가로막고 있다. 광주이씨 스마트 족보는 시간의 장벽을 허물어내 광주이씨 문중문화와 후손이 서로 소통하며 호흡하는 이 시대와 미래 후손들을 위한 광주이씨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6. 인터넷 족보와 스마트 족보의 차이

인터넷 족보는 웹(web)과 전자책(e-Book) 및 인터넷 웹사이트 형태로 웹의 특성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족보네트웍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의 족보이다. 스마트 족보는 다양한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등 이동성 단말기) 디바이스와 최적화되어 연동되며 스마트 에디터 환경을 가반으로 하는 족보이다.

스마트에디터는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 다양한 데이터와 연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여러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 쉽고 세련되게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 문서 편집기 다양한 파일, 음악, 영상 외에도 책, 상품, 영화, 뉴스 등 다양한 정보에 연동된다.

제2장. 스마트족보의 추진 계획

1. 스마트족보 편집위원회 구성

스마트족보 편집위원회는 스마트족보 제작 관련 사업 전반을 추진하며 관련 의사결정을 한다.

■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

- ① 스마트 족보 규정을 제정한다.
- ② 수단(收單) 접수의 원칙과 계획, 방법을 수립한다.
- ③ 스마트 족보 편집 체제를 정한다.
- ④ 스마트 족보 프로그램 구축 업체를 정한다.
- ⑤ 편집 및 교정, 검수를 수행한다.
(편수 및 교정위원)
- ⑥ 예산 편성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

2. 스마트 족보 규정 제정: 스마트 족보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제정.

- ① 스마트 족보의 수단에 대한 관리 근거. 규정
- ② 스마트 족보 운영 방법 및 DB(데이터베이스) 소유권 결정
- ③ 스마트 족보 완성 후 편집 및 추가 업데이트 권한
- ④ 스마트 족보 서비스 및 데이터 운영 방식 결정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 ⑤ 데이터 백업 및 권한 관리
- ⑥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과 그 한계 설정

3. 광주이씨6대보 범례 검토 및 시조 문제의 정립

4. 스마트 족보 업체 선정: 스마트 족보 제작 업체 선정

5. 스마트 족보 편찬 공고: 광주이씨 전 종원을 대상으로 일간지 광고 및 광주이씨대종회 홈페이지 공고

6. 스마트 족보 수단 공고 및 수단 접수, 수단 심사

제3장. 스마트 족보의 디지털 프로그램 구축 진행 절차

1. 광주이씨 스마트 족보 디지털 프로그램 기획

광주이씨 스마트 족보는 과거 보책 족보의 한계를 극복하여 웹2.0/웹3.0기반의 디지털SNS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을 기반으로 광주이씨 고유 문중문화의 특징적 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스마트 족보 프로그램에 기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광주이씨 고유 문중문화의 특징적 요소를 공론화 하여 개발한다.

2. 기존 족보 보책 기록의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 생성/입력

3. 스마트 족보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록 사진 조사. 수집. 입력

4. 신규 수단 접수 및 등록 / 입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교정 / 검수

6. 미래 후손들의 등보를 위한 추가 수단 / 교정 / 편집 시스템 구성

7. 스마트 족보 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 완료

8. 스마트 족보의 아웃풋 활용 검토-온라인 이용 / 보책 발행

9. 시험 운영 및 평가에 따른 사용자 의견 접수, 교정 및 보완

10. 스마트 족보 개통

제4장 스마트 족보의 기능

1) 기능 설정의 주요 방향

- ① 실시간 사용성 중심의 인터넷 스마트 족보
- ② 족보 접속 종원의 실시간 관리
- ③ 사용자의 족보 기록에 대한 상호 작용
(커뮤니케이션 및 커뮤니티)
- ④ 실시간 온라인 업데이트

2) 웹기반 스마트 족보 프로그램 주요 기능

- ① 선조 및 후손 이름 및 글자 검색으로 족보 찾기:
이름, 字, 號, 初名, 一名, 譜名, 관직, 학력, 직업, 배우자 이름 등 족보에 수록된 모든 글자를 검색하여 족보 기록을 찾을 수 있다.
- ② 기존 족보 보책의 기록 보기: 족보 譜冊의 기록을 e-Book 형태로 제작하여 볼 수 있다.
- ③ 직계 검색 보기: 자신을 기준으로 시조부터 末孫까지 직계 孫錄을 볼 수 있다.
- ④ 見上(선조), 見下(후손) 검색 보기: 자신을 기준으로 선조와 후손을 검색할 수 있다.
- ⑤ 入系 出系 검색 보기: 養子 입양에 따른 生父 기록을 볼 수 있다.
- ⑥ 8대 가계도 및 8대 부부 가계도 검색 보기: 자신을 기준으로 고조부부터 증손자까지 8대의 직계 가계도와 촌수, 호칭을 함께 볼 수 있다.
- ⑦ 後代 신규 수단 신청 업데이트 기능: 후손의 출생, 사망, 행적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 ⑧ 종인 개인 프로필 검색 보기: 개인의 주요 경력 등 프로필을 볼 수 있다.
- ⑨ 족보 한자사전 보기: 족보의 한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⑩ 족보 기록 관련 사진(이미지) 보기: 개인 및 가족 사진, 표창장, 훈장, 영정, 묘소, 묘비 등의 사진을 볼 수 있다.
- ⑪ 묘소 위성 사진 보기: 선조의 묘소 위성 사진을 업데이트하여 살펴피며 失傳을 예방한다.
- ⑫ 촌수 알아 보기: 일가 간의 촌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 ⑬ 족보용어 사전 기능: 족보에 수록된 다양한 용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 ⑭ 옛 관직. 관청 사전 기능: 족보에 수록된 옛 관직 용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 ⑮ 옛 지명 사전 기능: 족보에 수록된 옛 지명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3) 모바일 기반 스마트 족보 프로그램
웹기반 인터넷 스마트 족보 프로그램 기능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검색 기능 구성

▶ 다음 페이지에 계속

맺는 말

광주이씨대종회는 지난 7월 3일 광주이씨대종회 회의실에서 '전자족보발행 특별위원회'를 구성. 발족하고 광주이씨대종회와 10개 지파 추천위원 16명을 위촉하였다.

앞으로 특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광

주이씨 스마트 족보 제작을 위하여 다양한 현안들을 공론화하여 숙의를 거쳐 협의하며 광주이씨 스마트 족보 제작을 추진 할 것이다. 이 시대 족보는 한 사람 개인 또는 수 많은 광주이씨 후손과 광주이씨라는 씨족공동체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미디어이다. 족보가 살아있어야 후손들이 광주이씨와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다. 필자는 개

인적으로 광주이씨 스마트 족보가 21세기와 미래 트렌드를 수용하여 이 시대 광주이씨 종원과 소통하며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호흡하는 족보로 탄생하길 바라며 밀력이나마 위원회 활동에 노력의 의지를 밝힌다.

- 전자족보발행 특별위원·목사공파 총무이사 종익記

시조(諱;唐) 묘소 벌초작업 & 간담회



총무 이상기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회(위원장 택동-23대손)는 지난달 15일 삼북더위에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위원 7명은 영천에 위치한 시조(諱;唐) 묘소에 찾아 성묘하고, 추원재에서 시조위 현양사업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초복을 맞아 택동 위원장은 시조위에 톨큰 수박을 재물로 올리고 헌작하면서 처음 마음처럼 선조님을 잘 모실것을 다짐하였으며, 신입 수호관리위원으로 처음 참여하신 용갑(사인공파 20대손) 위원과 수호(좌통례공파 21대손)위원도 차례로 헌작하고 인사를 올렸다.

이어서 추원재 재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0,000㎡(3천평)이 넘는 시조묘역 잔디밭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현재는 관리인 정석(좌통례공파 22대손) 종인이 매년 7회 이상 벌초 작업을 하고 있으나 향후 관리인의 고령화 등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의 보행 예취기 보다 안전성 있는 승용 예취기 구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잡초 및 쉼녀굴 제거, 고사목, 재해피해목의 벌목



좌로부터 정석, 택동, 종석, 수만, 수호, 용갑

등 소나무 관리작업에 위원들이 단합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대종회 산하의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8명이 영천과 가까운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여 수시 합동작업 또는 간담회

등으로 친목을 도모하면서 시조묘소 수호관리에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 영천 시조묘소 수호관리위원회 총무 상기記

제9회 둔촌이집 문학상 시상식

일시 : 2026.9.30.(수) 오전 11시

장소 : 둔촌재실

후원 : 광주이씨대종회

■ 2026 둔촌이집문학상 심사평 (본상/ 유자호 시집 「AI와 詩」)

우리말, 우리글처럼 격조와 아름다움을 지닌 언어도 없다. 그 빛나는 언어에 가락을 얹히고 깊은 여운을 거느리는 감동의 세계가 시의 미학이다. 더구나 3행의 우리 시조는 압축과 절제미, 직관과 관조로 우리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아내고 있다.

유자호 시인의 시집 「AI와 詩」는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현대의 고독과 고단함속에서 피어난 온기와 함께 시대

와 사회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사유를 우려내고 있다. 이 시집이 더욱 빛나는 것은 자유시와 함께 우리 고유의 정서와 리듬이 담긴 시조를 함께 수록하고 있는 점이다. 자유시에서는 실존적 질문과 관계와 동행, 연대의 의미를 포착하고 4부 시조에서는 우리 시조만이 지닌 미학을 정제된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그런점에서 제9회 둔촌이집문학상 본상에 유자호 시인의 작품집 「AI와 詩」가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 축하드린다.

- 심사위원(무순): 권갑하, 김현숙, 김길형, 김유조, 김건중



둔촌 선조 탄신 7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

“고려 말의 포은(圃隱) 정몽주, 목은(牧隱) 이색, 도은(陶隱) 이숭인, 삼은(三隱)과 사상을 교류하며
한시대의 정신적 지주로서 귀감이었던 큰 스승, 둔촌 이집 선조의 고결한 정신을 잇다”

당대의 대유학자이자 충절의 상징, 둔촌 이집 선조의 탄신 7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의 가치와 의미를 담은 창의적이고 뜻깊은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1. 공모 개요

가. 공모명 : 둔촌 이집 선조 탄신 700주년 기념 행사 슬로건 공모전

나. 공모 주제 :

- 1) 둔촌 선조의 충정, 효행, 학문적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내용
- 2) 탄신 70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 가치를 담은 문구

다. 공모 형태 : 20자 내외의 문구 (한글, 한문, 영문, 기호 등 사용 가능)

2. 참여 대상

둔촌 선조를 경모하는 누구나 **(광주이씨 종친에 한하지 않음)**

3. 공모 일정

가. 접수 기간 : 2026년 7월 1일 ~ 9월 15일까지

나. 결과 발표 : 2026년 9월 30일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4. 시상 내역

가. 최우수상 1명 : 상장 및 상금 50만원 (행사 공식 슬로건으로 활용)

나. 우수상 3명 : 상장 및 상금 30만원

다. 장려상 6명 : 상장 및 상금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라. 참가상 : 문화상품권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접수 방법

가. 온라인 접수 : 대중회 홈페이지

나. 제출 서류 : 공모전 응모 양식 1부(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홈페이지에서 다운 (슬로건은 1인당 1개 응모 가능)

다. 접수처 : 광주(廣州)이씨대종회 사무국(이메일, 우편접수, 홈페이지 참조)

6. 문의처

• 광주이씨대종회 / 둔촌 선조 탄신 700주년 기념사업회

• 전화번호 : (02)735-1720

• 홈페이지 : gwanglee1720@nate.com



둔촌 선조 탄신 700주년 기념품(한정판)

- 금액 : 1세트당 70,000원
- 입금처 : 기업은행 024-098339-04-169 광주이씨대종회
받는분 표시내용 : 예) 문숙용문기념 (지파명, 이름, 기념)
- 연락처 : 02) 735-1720

경품

1번, 27번(탄생연도), 62(탄생월일),
100, 200, 300, 400, 500, 600,
700번째 구매자.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2026년 8월 구독 및 찬조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갑영	10,000	경북 칠곡	이기만	10,000	충북 충주	이종윤	10,000	충북 충주	이번래	10,000	경기 광명
이유한	10,000	경북 영천	이기수	10,000	충북 충주	이종철	10,000	충북 충주	이용덕	10,000	경기 수원
이주돈	10,000	서울 강남	이덕수	10,000	충북 충주	이종호	10,000	충북 충주	이용만	10,000	서울 광진
이정재	30,000	전남 광주	이동수	10,000	충북 충주	이창종	10,000	충북 충주	이도재	10,000	대전 중구
이익재	20,000	전남 보성	이동희	10,000	충북 충주	이시재	10,000	충북 충주	이용권	10,000	서울 용산
이헌래	20,000	광주 북구	이명재	10,000	충북 충주	대전해주목사공 39X10,000=390,000			이종순	10,000	대전 중구
이충환	10,000	충북 청주	이문수	10,000	충북 충주				이덕재	10,000	충남 계룡
이성환	10,000	서울 서대문	이범수	10,000	충북 충주	이용복	10,000	대전 유성	이창재	10,000	대전 대덕
이일환	10,000	경기 하남	이석기	10,000	충북 충주	이종형	10,000	대전 유성	이흥재	10,000	경남 창원
이승환	10,000	충북 청주	이승환	10,000	충북 충주	이용석	10,000	대전 유성	이용호	10,000	대전 중구
이장환	10,000	충북 제천	이순식	10,000	충북 충주	이화래	10,000	대전 중구	이종규	10,000	대전 서구
이용정	10,000	서울 성북	이원재	10,000	충북 충주	이헌재	10,000	대전 유성	이공재	10,000	세종 조치원
이종덕	10,000	충북 단양	이응호	10,000	충북 충주	이유재	10,000	대전 유성	이준재	10,000	대전 서구
이윤래	10,000	경기 포천	이인환	10,000	충북 충주	이헌재	10,000	서울 양천	이정재	10,000	대전 중구
이근두	30,000	인천 강화	이장영	10,000	충북 충주	이종업	10,000	대전 중구	이상훈	10,000	대전 유성
이정재	10,000	대전 대덕	이정재	10,000	충북 충주	이종국	10,000	충북 청주	이원재	10,000	서울 종로
이종민	10,000	경기 과천	이종갑	10,000	충북 충주	이희재	10,000	서울 광진	이승언	10,000	서울 강동
이종성	10,000	부산 금정구	이종광	10,000	충북 충주	이권재	10,000	대전 동구	이종원	10,000	대전 유성
이성재	20,000	울산 중구	이종기	10,000	충북 충주	이흥재	10,000	대전 중구	이종찬	10,000	대전 서구
이준희	10,000	인천 부평	이종대	10,000	충북 충주	이승완	10,000	대전 서구	이종기	10,000	대전 중구
이용태	10,000	서울 종로	이종득	10,000	충북 충주	이성재	10,000	충북 단양	이용문	10,000	대전 유성
이인수	10,000	부산 금정	이종배	10,000	충북 충주	이증재	10,000	대전 유성			
충주 청장년회 30X10,000=100,000			이종상	10,000	충북 충주	이용건	10,000	서울 동대문			
			이종성	10,000	충북 충주	이승재	10,000	인천 미추홀			
이근재	10,000	충북 충주	이종우	10,000	충북 충주	이염래	10,000	서울 서초			

▶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봐주십시오.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으나 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만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농협은행 : 301-0290-6787-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동명이인**이 많으니
성명과 지역을 적어 보내시거나 (예 : **홍길동 서울 또는 홍길동 종로**)
☎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6年 9月 1日

<제424호>

廣州李氏會報

발행인 : 이 주 영
편집인 : 이 주 흥
주 간 : 이 종 덕
발행처 : 광주이씨대종회

www.gwanglee.or.kr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31-8, 광릉빌딩 501호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1720@nate.com